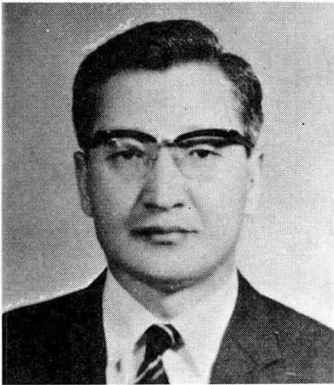




방재시험소 설립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출발



이 병 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방재시험소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총 47억원이 들었다.

성남-이천-장호원-충주를 잇는 중부산업도로 연변, 장호원에 가까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는 총 3만1천평. 그중 대지가 2만여평, 임야가 1만여평이며 총건평은 2천1백여평에 이른다.

1차공사로서 본관, 연구동, 식당 및 수위실이 합하여 1천2백평, 그리고 2차공사로서 특수시험동과 기숙사를 합하여 9백여평이며, 이들 전체의 공사비가 지가를 합하여 33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름다운 운동장도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좋은 경기장이 될 것이다.

이 시험소에 들어가는 시험기기는 총 12억4천8백만원 어치나 된다. 그중 외자구입 기기가 3억2천9백만원, 국내주문제작이 4억7천만원, 방·내화기기가 2억6천6백만원, 기타 8천8백만원 등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체제로 개편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즉 이사장 아래 소장이 위임을 받아 시험소를 관리하되 전문이사의 도움을 받아 시험1부와 시험2부에서 각각 기초시험 및 방

내화시험, 그리고 경보장치시험과 소화장치시험에 대해 연구와 시험을 하게되며 조사연구부로 하여금 조사연구 및 정보처리등을 하게 하고 관리부로 하여금 일반 총무와 관리업무를 관장토록 하게 될 것이다.

이 방재시험소의 기능과 업무를 살펴보면 초창기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시험연구소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시험연구업무는 화재기초시험 연구와 방화제품 시험연구로 나누어 특히 후자는 다시 소방기구와 방화제품으로 나누고, 소방기구시험연구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약제, 경보장치(감지기), 소화장치(Sprinkler)등을 다루게 되며 방화제품시험연구에서는 방화벽과 방화문의 방내화성능, 그리고 내장재와 방염 등을 포함하는 연소성능등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방재기술의 도입과 개발, 정보처리의 업무를 조사연구부가 담당하여 기술정보 수집과 제공, 기술정보 회원운영에 실을 기하고 방재조사연구업무에서는 방재기술기준 조사연구와 각종 방재지

침조사연구 및 이재사례조사와 부보물건의 위험관리 연구등을 하게 된다.

방재시험소 설립취지는 산업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대형화재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기술 개발 및 연구를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합 방재기관으로서의 완벽한 선진형 위험관리 기반을 구축함에 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방재기술의 혁신, 방재 관련제품의 질적향상, 방재기술정보의 수집 및 공급,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다.

주요역할로서는 화재 폭발등 안전사고의 예방지침은 물론 국가 방재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공과 방위산업을 비롯한 국가의 안보시설을 적의 공습이나 테러등의 제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의 강구와 그리고 방재관련기관 및 업계에 선진방재기술을 제공 또는 지원해 주는데 있다.

이밖에도 보험목적물의 획기적인 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이재율을 감소시키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경감은 물론 할인 및 할증의 합리화로 보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방재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보험의 신뢰도 증대와 함께 운영수지의 개선과 보유의 적정화를 이룩하고 해외 출수재의 역조를 개선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 방재시험소가 설립된 배경으로서는 1978년 3월 국무총리지시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설 시험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의 싹이 텄다.

그후 1980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실행연구를 통한 방재활동의 적극 추진을 지적받은 바 있으며, 1981년 6월 내무부 감사결과 방재시험소를 설치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방재시험연구를 강화토록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1980년 12월 31일 재무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기관으로서 예산 57억5천만원, 인원 57명의 시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981년 1월 방재연구부내의 6명으로 시험소 설립업무를 착수케 하였으며, 1982년 10월에는 21명으로 방재시험소설립 추진본부를 발족시켰고 1984년 9월에는 32명으로 설립추진본부의 인원이 충원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10월에 1차공사가 끝남에 따라 방재시험소 현장으로 모두 이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험소 설립 자료조사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1981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등 국내시험연구기관

에 대한 설립 자료 및 실태조사를 했고 1981년 2월에는 대학교수 및 연구소 권위자 8명으로 부터 설립자문을 받으며 1981년 7~8월에는 해외 5개국 9개 기관의 방재시험소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1981년에서 1982년에 걸쳐 방화제품의 실태, 화재 원인 및 통계, 보험기관의 방재시험연구사항, 점검부서 시험연구사항 및 국내 공산품의 품질관리 시험제도등의 국내 방재업무의 조사를 계속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1981년 12월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와 재무부에 제출했다. 거기에는 초창기 업무로서 소화기 및 소화약제, 경보장치, 소화장치(Sprinkler), 방내화 및 방화문, 내장재 및 방염의 연소시험등을 주요업무로 하되 장차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가도록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재무부의 합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동시에 1981년 12월에 다시 방향설정에 대한 사제의 전문가로부터 제2차 자문을 받았고 1982년 11월부터 1983년 4월까지 6개월간 12회에 걸쳐 본인을 포함한 KAIST원장, 沈文澤박사, 韓萬靖박사등 4명으로부터 시험소설립추진을 위한 최종 기술자문을 받아 이를 확정했다.

그리하여 1983년 6월에는 동시험소 설정 및 세부 계획이 작성되어 1983년 8월 1차공사를 대농건설이 시공하게 되었으며, 1984년 12월에는 2차공사를 미도파가 담당하게 되어 각각 1984년 9월과 1985년 9월에 준공을 보았다. 설계는 1983년 1월부터 12월에 걸쳐 필건축설계사무소가 맡았다.

참으로李大鎰이사장의 영단과 열의와 노력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끝으로 이 방재시험소의 설립효과에 대해서 쓰기로 한다. 첫째로 방재정책 수립에 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관계법규의 보완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방화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우수제품 추천 및 생산을 유도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방화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의 과학화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리개선과 보험료의 적정화 및 해외출수재의 역조 개선등에 기여할 것이며 또 방산등 국가안보 시설의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력(인력 및 재산) 소모방지를 비롯한 국가안보등에의 기여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적재를 많이 모아서, 적소에 배치하여 내실있는 훌륭한 시험소가 되기를 희망하며 끝을 맺는다. ☐